

140만 명 갇혀 있는 라파에서의 지상전은 재앙 낳을 것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라파에 지상군 투입말라 인종 학살 당장 멈춰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로의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 병력을 집결시켰고, 며칠 내로 라파로 진입할 것이라는 이스라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내 최대 피란민 밀집 지역인 라파의 지상군 공격은 재앙적인 피해를 낳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라파 지상군 투입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라파는 어떤 곳?

가자지구 남단에 위치하고,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파에는 현재 14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몰려 있습니다. 라파엔 제대로 된 의료 시설도, 식수도, 음식도 제공되지 않아 기아와 질병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식량과 기아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유엔식량권 특별 보고관).

이스라엘은 7개월 전 가자지구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자 주민들에게 “안전한” 라파로 피신하라는 명령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란민들을 폭격하고 살해해 왔습니다. 공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해야 이스라엘인 인질들을 구출하고 하마스를 섬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과 폭격은 오히려 인질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합니다. 지금까지 136명의 인질 중 32명이 이스라엘군의 폭격과 오인 사격으로 사망했습니다.

34000

지난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학살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수입니다. 이들 중 75퍼센트는 어린이와 여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섬멸하고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들이 그간 벌인 것은 팔레스타인인 인종 학살이었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이스라엘의 만행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자지구 내 병원 인근에서 이스라엘군이 학살한 후 집단 매장한 환자와 의료진 시신 수백 구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신은 손이 뒤로 묶여 있거나 봉대를 감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가자지구 주민 85퍼센트가 난민이 됐고, 건물 60퍼센트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학교 3분의 2가 파괴·손상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올해 1월 내 려진 국제사법재판소의 인종 학살 방지 명령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살 공범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을 강탈한 1948년 이래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 청소하고 학살해 왔습니다.

미국 등 서방 정부들은 이런 이스라엘을 지지, 지원해 왔습니다.

미 대통령 조 바이든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희생이 커져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실제 행적을 보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원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로의 지상군 투입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유엔 휴전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았고, 미 의회는 4월 23일 36조 원에 달하는 이스라엘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정의와 자유를

그러나 지난 76년 동안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서 온 팔레스타인인들은 무릎 꿇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요르단에서는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매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컬럼비아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캠퍼스 점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매주 토요일 한국인들과 재한 팔레스타인인들, 아랍인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도심 집회와 행진을 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고 비극과 학살을 멈추려면 이스라엘과 공범들을 향한 항의와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연대가 더욱 크고 강하게 울려퍼져야 합니다.

4월 27일(토) 32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에 참가합니다! 자유와 정의를 위한 행동에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4.04.23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집중 행동의 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이스라엘은 라파에 지상군 투입말라 인종 학살 당장 멈춰라

4월 27일(토) 오후 2시 /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 아랍어-영어-한국어 통역 제공
- 집회 후 도심 행진

(집회장 → 미국 대사관 앞 → 인사동길 → 종로2가 → 이스라엘 대사관 앞)

- 차기 집회·행진 5월 4일(토) 오후 2시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집회와 홍보 활동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재한 팔레스타인인·아랍인·국내 시민사회단체 41곳이 함께합니다. (2024.3.12. 현재)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문의: 010-7550-2131 | people.freepalestine@gmail.com | bit.ly/people-freepalestine | 인스타그램 @people.freepalestine
인스타그램과 웹페이지에서 서울,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등 여러 지역의 집회 일정과 가자지구 주민 메시지 등 다양한 사진과 영상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